

분류	주일강단 1부
제목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
성경	롬8:18-25
일시	2024년 3월 31일
장소	성암교회
강사	정영신 목사 (정리: 김홍구 목사)
주제어	

♣성경말씀(로마서 8:18-25)

롬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8: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롬8: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롬8: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롬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롬8: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롬8: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롬8: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 독취 자료 ♣

서론)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은 본래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오(요1:14).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다(요1:18).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것이다(요6:38).

예수 공생애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인 것이다.

▶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원수들은 자신들이 완전하게 완승했다고 십자가 밑에서 잔치를 하며 축제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삼일 후에 예수의 부활로 인해 완승이 아닌 처참하게 패배자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월절에 놓아줄 것인가 강도 바나바를 놓아 줄 것인가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피 값을 나와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다. 결국 그 후손들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당했는가. 원수들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되었기에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은 죽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 예수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고난이 없이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일,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요 진리이다. 이일은 초월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

문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을 이루는 길이다.

본론)

1.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

1)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1)때로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에게 조롱당하거나 핍박받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핍박하지 않는가? 대중 믿지 그렇게 대단하게 믿냐고 한다.

(2)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너희만 잘났냐 한다. 너희만 그리스도냐 한다.

(3)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에 다른 것은 손해 보거나 포기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우선되는 시대인 것이다.

2)언약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더 큰 축복입니다.

(1)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일생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2)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과 방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이다. 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3)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고난을 통해 승리한 증인들

(1)7 램네프와 포로시대 사람들

(2)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단 사람도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없다. 요셉을 보라. 고난의 삶이었다. 모세를 보라. 고난의 연속이었다. 사무엘, 다윗을 보라.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을 보라. 노아를 얼마나 손가락질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라. 불 속에, 사자굴에 들어갔다. 안 선택해도 되는데 죽음을 선택했다. 고난 뒤에 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2. 고난을 이기는 3가지 비밀

1)우리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않은 다른 힘을 가진 자이다.

(1)복음 없는 불신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다른 것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그것을 넘기려고도 한다. 그런데 절대 것을 넘길 수 없다. 자체가 진노의 자녀다.

(2)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3)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에서 부여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고통하는 세상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2)우리는 다른 소망을 가졌습니다.

(1)땅의 것은 참 소망이 아니며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있다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다.

(2)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3)양자로 부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법적인 상속자가 된 것이다. 지난주 메시지다.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께 부를 수 있는 자격, 신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3)우리에게는 다른 시간표가 있습니다.

(1)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소망을 가졌기에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받은 자이다.

(2)참 영광을 본 사람은 지나가는 고난이 우습게 보인다.

이것을 모르면 고난이 올 때마다 몸부림치는 것이다.

(3)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 천국소망

이 땅에서 그 맛을 보다가 참 소망의 그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1)고난을 제대로 해석하라.

고난이 오면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1)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것을 참고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그걸 붙잡고 애걸하고 복걸한다.

(2)꼭 필요한 고난이라면 그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으라.

하나님이 필요로 주시는 고난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찾으면 되는 것이다.

(3)영적 싸움이 필요한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도전하라.

육신 싸움은 많이 하는데 영적 싸움은 안 한다. 그렇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사탄이다.

2)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라.

(1)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감사하라.

복음 때문이라면 감사해야 한다.

(2)나 자신 때문이라면 빨리 갱신하라.

그래야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욕은 어떤 그릇을 가졌는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이 나아간다. 욕이 이런 그릇을 준비한다. 장차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3)어떤 일, 사람도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는 큰 그

릇을 가져라.

개혁해야 한다. 사랑의 그릇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그 사랑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3)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1)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복음이졌다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런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2)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의 수준, 그릇, 믿음도 알고 갱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절, 낙심, 염려, 근심,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고난이 온다면 감사해야 한다.

(3)큰 응답 받을 사람에게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나의 유익인 것이다. 고난당했더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다. 고난을 아는 자들이 아는 것이다.

결론)

벤전4:13 "오로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안 것이다. 어느 정도 이 고난이 응답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 아는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영광임을 알았다. 복음 전하다 순교당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안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 믿는다. 지금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보다 크겠는가? 세계복음화 하고 천국으로 갈 영광. 고난이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담대한 것이다. 구원 받지 못한 영은 죄에 사로잡혀 있다. 모르는 것이 죄에 잡혀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참 소망을 가진 자이다. 내가 누구인가? 내용을 알아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이다.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큰 그릇을 준비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큰 분이시기 때문이다. 현재 온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